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제1절 남북한 인적교류

제2절 남북교역

제3절 남북간 통행 · 통신 · 통항

제4절 남북경제협력사업

제5절 개성공단 개발

제6절 남북사회문화 교류협력

제7절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여건조성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오고 있다.

남북경협은 사회문화교류 확대 및 우리 국민들의 대북 인식 제고에 기여하는 등 남북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북한을 동북아 협력 네트워크로 유도하여 경제공동체 건설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2004년 하반기 이후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 교류협력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경의선·동해선 도로연결공사는 2004년 11월말 모두 완료되었고 개성공단 15개 시범단지 입주기업 중 리빙아트가 첫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3년 9월 이후 육로관광이 정례화된데 이어 2004년도에는 관광객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안정적 추진기반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종합해 볼 때 2004년은 남북 당국간 대화가 일시 중단되었지만 남북간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한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절 남북한 인적교류

1. 남북한 왕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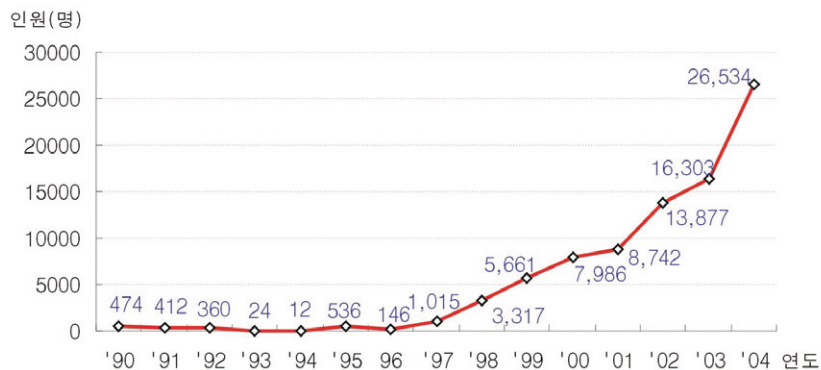
2004년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한 북한 방문자 수는 26,213명으로 1989년 방북이 허용된 이래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다녀왔고 전년도 방북인원 15,280명에 비해 71.5% 증가하였다.

2004년 하반기 이후 남북간 대화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건설 등 경제분야 관련 방북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자 수는 321명으로 전년도의 1,023명에 비해 218% 감소하였다.

2004년 남북 왕래인원은 총 26,534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연도별 남북왕래인원 변화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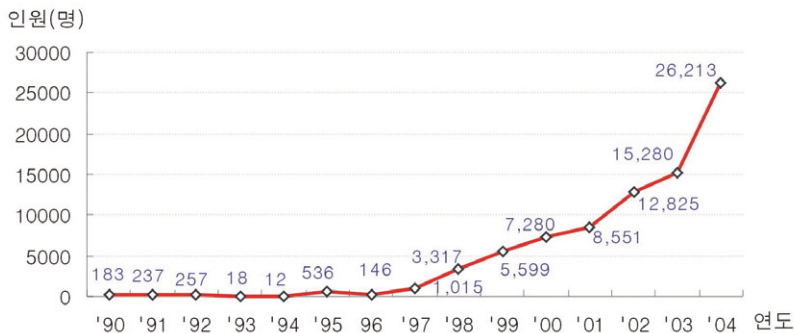
가.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1989년 이후 2004년까지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한 남한주민의 북한 방문자 수

는 총 81,470명이고, 2004년도 방북인원은 26,213명으로 전년도의 15,280명에 비해 71.5% 증가하였다.

1989년 이후 2004년까지 경제분야와 관련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자 수는 17,411명이고, 2004년 경제분야 방북인원은 13,075명으로 2003년 방북인원 2,905명에 비하여 350% 증가한 것이다.

【 연도별 북한방문 변화추이 】



남북 당국간 회담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 공사와 시범단지 2만 8천평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척되어 경제분야 관련 방북은 예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다.

개성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입주기업 공장건설 착공식, 관리위원회 개소식, 토지공사개발사무소 준공식 등 개성 현지에서 열린 각종 기념 행사 참석을 위하여 남측인원이 방문하였으며, 특히 2004년 12월 15일에 있었던 개성공단 첫째품생산 기념식 행사에는 국회의원 79명을 비롯한 385명의 남측인원이 참석하였다.



경의선 출입사무소 검색대 통과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한 자재 장비 지원, 일반 경협사업으로 녹십자 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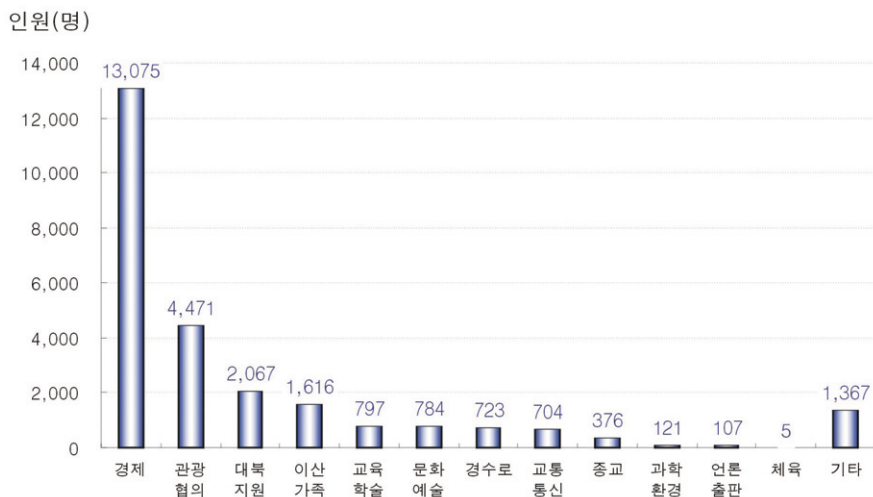
키나제 반제품 반입사업, 태창의 금강산샘물 개발사업, 평화자동차의 자동차 조립 생산사업, 안동대마방직의 삼베제품 사업 등 남북경협과 관련한 방북이 이루어졌다

1989년 이후 2004년까지 사회문화분야 관련 북한방문은 6,695명(558건), 2004년에는 2,190명(93건)이 성사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2,472명(100건)에 비하여 12.8% 감소한 것이다.

2004년도 하반기에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대규모 입국과 소위 조문파동으로 인해 남북간 왕래가 제한되기도 하였다.

2004년도 학술·체육분야 주요 방북사례는 일제 약탈 문화재 반환을 위한 남북 공동학술토론회 및 자료 전시회, 고구려 고분군 세계문화 유산등재기념 남북공동 전시회 및 학술 토론회 등이며, 832명이 방북하였다.

【 2004년도 분야별 방북현황 】



2004년도 언론·출판분야 주요 방북사례로는 민족문학작가회의의 민족작가대회 개최추진, 통일맞이의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KBS의 다큐멘터리 ‘고구려의 부활’ 제작, MBC의 다큐멘터리 ‘북녘의 음식’ 제작, 조선일보의 고이즈미 일본총리 방북 취재, 방송위원회의 아테네 올림픽 방송중계 협의 등이 있다.

종교분야에서는 7월 조문사태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졌

다. 2004년도 주요 방북사례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 천태종의 개성 영통사복원 협력사업,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남북공동기도회 개최, 대한감리회 서부연회의 평양신학원 운영사업 추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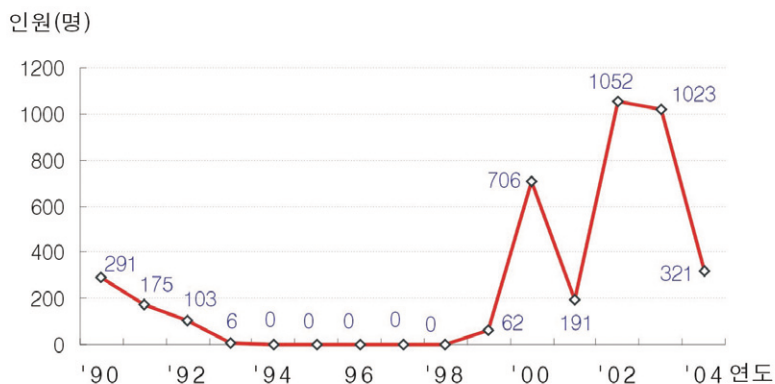
문화 예술 분야의 2004년도 주요 방북사례로는 지우다우에서 추진한 「금강산 통일새내기 배움터」 남북 대학생 교류행사와 민화협 등의 고구려 유적관련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민간단체 등 기타분야의 2004년 주요 방북사례로는 8.15 남북공동행사 등 남북 공동행사 참가, 남북청년학생대회 참가협의, 강원도, 제천시 등 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협의, 제2차 남북농민 통일대회, 남북노동자 5·1절 남북공동행사 등이 있다.

나.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1989년 이후 2004년 12월말까지 3,930명(65건), 2004년 한 해 동안 321명(13건)이 성사되었다.

【 연도별 남북왕래인원 변화추이 】



【 주요 남한방문 현황 】

방문목적	방문자	방문기간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김령성 등 28명	2004.2.3~2.6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최영건 등 27명	2004.3.2~3.5
제3차 남북청산결제 실무협의	윤선호 등 20명	2004.4.20~4.22
동아시아전력연합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참석	최영건 등 7명	2004.5.17~5.22
제2차 남북장성급회담	안익산 등 33명	2004.6.3
ASEM 철의 실크로드 심포지움	박정성 등 6명	2004.6.16~6.19
남북장성급회담 실무대표 접촉	유영철 등 23명	2004.6.29~6.30
문익환목사 10주기 추모행사 참가	주진구 등 7명	2004.1.16~1.19
일제약탈문화재 반환 관련 학술행사 작가단 수송	지동훈 등 16명	2004.2.24~2.28
제2회 국제연대 협의회 서울대회 참가	홍선옥(일본의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 협의회 조선위원회 공동위원장)	2004.5.20~5.24
남북공동행사	최상순(조선사회과학자)	2004.6.2~6.5
6.15 4돌 우리민족대회 참가	김정호 등 126명	2004.6.14~6.17